

설교제목: “병을 꾸짖으시다”

설교본문: 누가복음 4 장 38~44 절

신약성경 4 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쓴 누가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이방인이다.

그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헬라어를 말하고 쓰는데 능통하였던 당시 엘리트 지식인이었다.

의사로서 누가는 유능한 의사였지만, 아마 많은 환자를 대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늘 절감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불치의 병과 죽음 앞에서 그는 무기력했을 것이다.

그는 사람은 왜 병에 걸리는가라는 질문과 죽음 앞에 답을 못 찾고 늘 방황하고 당황했을 것이다.

그런 그가 드디어 답을 찾은 것이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안디옥에 살았던 누가는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 복음 전도자의 전도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은 것이다.

그 후, 그는 복음 전도자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과 같은 사도 바울을 만났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된다.

누가는 예수님이말로 참 의사로서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시는 진정한 의사이심을 고백하게 된다.

누가복음

5:3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5: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다.

죄가 병도 만들고, 악을 만들며, 결국 인간을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한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찾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악에 굴복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오늘 성경본문 말씀이다.

예수님이 제사 시몬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시게 되었다. 베드로가 초청하였다. 그 이유는 그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혼수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 어떤 병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39 절에 이런 표현이 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하고 있다. 그러자 병이 떠났다고 하였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더구나 의사 누가의 표현이다.

당시 의사로서 누가는 많은 열병 걸린 사람들을 봤을 것이다. 어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열병에 걸리는 것을 봤을 것이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 주변에 같은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져서 면역력이 약해져 생긴 병일 수 있으며, 또는 악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힘이 역사하여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당시 의사들의 생각을 상상하여 추측한 것이다.

악한 영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고 악하게 하여 그리고 주장하게 되면 마음과 더불어 몸도 병들어 열병에 걸리거나 망가지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열병이 악한 영인 것처럼 꾸짖으셨다. 그러자 동시에 시몬의 장모를 주장하던 그 악한 영(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는 즉시 떠난 것이다.

시몬의 장모는 다시 건강한 여인이 되어 즉시 예수님의 일행들을 위해 수종 들게 된다.

우리의 삶의 적은 바로 이 악한 힘이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여 꼼짝 못하게 하는 악한 힘, 그 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며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 역사하기 쉽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자.

더불어 자신의 마음을 사악과 탐욕에 맡기지 말며,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자.

사단이 좋아한다.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선한 일에 내 생각의 초점을 모으면 악한 힘이 내 곁에 다가서질 못한다. 복 있는 사람이란 이렇듯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험통하며 즐거우며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며 망하게 하는 것들의 정체를 폭로시켜 그것들을 쫓아내 주셨다.

의사 누가는 사람의 병 넘어 악한 영의 역사를 드러내고 물리치시는 예수님에게서 참 치유를 본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

4:41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

열병의 정체가 밝혀졌다. 열병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었다. 악한 영들이다. 사단의 졸개들이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꼼짝 못하게 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나 곧 사악한 나로 만드는 악한 영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 봤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 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모를 리가 없으셨다. 하지만 그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지 어떤 능력이나,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무조건 무서워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른 고백이 못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한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증거와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의 믿음은 참 믿음이 못 된다.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을 기름 부어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는 자로 여겼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메시아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왕을 말한다.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아 다스릴 왕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 큰 선지자로도 말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던 사람을 따르면 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왕으로 예우하였고 예수님도 당신이 왕이시다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4: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모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신다.

병이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며, 소망했던 세상적인 출세나 영광을 얻는 일 우리의 소망이 되겠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일이다.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다.

우리의 준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하는 일이다.

불치의 병, 고약한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일,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다.

병 낫는 일, 복 받는 일,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상, 예수님의 참 왕이 되시어 통치하시는 세상을 볼 줄 알고 그 백성으로 사는 일에 힘쓸 줄 알아야 한다.

구원이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지금부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을 말한다.

병을 꾸짖으시어 병을 쫓아내신 예수님처럼 모든 우리 보이는 일 배후의 악한 것들을 분명히 보고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권능을 받아 모든 불의와 악과 대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자.